

정신질환자 회복지원공간 '첫마중' 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일상 회복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전주시는 지역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회복지원공간 '첫마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복지원공간 운영에 앞서 시는 읍·면·동·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해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상담 등을 진행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회복지원사업은 회복지원공간운영,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취업활동지원, 자립을 원하는 자립체험활동, 각종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병원 및 시설 퇴원·퇴소자



전주시는 지역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회복지원공간 '첫마중'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초기적응지원, 치료절차 보조 및 자원연계 등을 제공한다.

병원 또는 시설 퇴원·퇴소 후 지역 사회 복귀 및 독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전주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영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선 전주보건소장은 "회복지원 사업은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라며, "인력과 전문성 등 전주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시청에서 2022년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성진여객 김윤수 씨 등 12명의 운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2년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김윤수 △김진호 △김태오 △신홍만 △이상석(이상 성진여객) △김재영 △송현석(이상 전일여객) △한근호(제일여객) △고일성 △박학기 △이성연(이상 호남고속) △김철수(시민여객) 등이다.

겨울철 교통안전관리 '집중'

전북경찰청, 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 점검 나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14일 점검했다.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되는 교통안전관리다.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경찰청은, 교통순찰차(70대) 탐재장비 차량을 점검하고 지자체·익산국토관리청 등의 도로관리청과 총 17회 간담회를 개최

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업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했다.

또 취약구간 97개소(일반도로 85개소, 고속도로 1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제설자재나 모래함 등 보충조치도 했다.

경찰청은 기상 악화에 따른 교통두절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우회도로 확보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교통안전관리에 모든 집중을 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전북경찰은 기상 상황에 따른 선제적 교통 통제 및



전북경찰청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14일 점검했다.

교통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겨울철 기상 변화에 도민 모든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추천로 '쥬효성중전기'로부터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받아 기증식을 14일 열었다.

효성중전기, 소화기 200개 기증

전주덕진소방서에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 위해 전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형철)는 덕진구 추천로 '쥬효성중전기'로부터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받아 기증식을 14일 열었다.

'쥬효성중전기(대표 김용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기증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전주덕진소방서에 소화기 200개 기증을 했다.

김용희 대표 이사는 "연말연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취약 계층에게 겨울철은 더 춥고 화재는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느껴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기증하게 되었다. 이번 소화기 기증으로 겨울철 화재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효성중전기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전달된 온정이 조속하게 취약계층에 전해 소방 안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2,800세대 이상의 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하는 등 매년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왔으며, 14일 기증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물 접수 후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재지정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생을 배출하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도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호자를 대신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다하고, 교육과정(신규 40시간/전문 32시간)을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강병은 관장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과 어려움이 많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절실하며, 복지관에서는 다년간의 교육 경험을 통해 질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본격적인 화재 취약시설 자율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을 14일 실시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D-day)'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14일 남부시장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관계자 중심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및 지도, 다수 밀집장소 체험교육 부스 설치 등



안전교육·캠페인 실시, 소방관서 생활안전교육, 안전체험, 피난피도그램 배부, 화재위험요인 제거, 제거·가스 시설 안전사용 당부,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당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차량용소화기, 주방용 K급 소화기 안내' 등이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